

위로와 치유의 기도

2012-2018 기증 하정웅 컬렉션
7월11일까지 '씨를 뿌리는 사람' 전
이우환 'With Wind'·오병환 '정물'
백남준 '마살 맥루한의 초상' 등
광주시립 하정웅미술관 70여점 전시



아사다 다카야기·아사다 유리코 작 '씨를 뿌리는 사람'

재일교포 사업가이자 미술품 컬렉터인 하정웅 광주 시립미술관 명예관장과 광주시립미술관의 인연은 1992년 광주시립미술관 개관과 맞물려 있다. 하씨는 오래전부터 자신이 태어난 일본 타자와 호수 옆에 '기도의 미술관'을 건립하려 했었다.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이 지역은 일제 강점기 발전소 건설공사를 위해 조선인을 포함한 수많은 노동자가 강제 징용돼 목숨을 잃은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곳으로 하씨는 미술관을 통해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위로하려 했다.

미술관 건립이 무산되면서 1980년 5월의 상처를 안고 있는 광주가 그에게 다가왔고,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확장해 자신의 컬렉션을 통해 세계 인류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길 원했다.

평생에 걸쳐 수집한 1만여점의 미술작품과 자료를 국내의 주요 미술관 등에 기증한 그는 특히 광주시립미술관에는 개관 직후인 1993년부터 2018년까지 재일작가 작품들과 함께 민주, 인권, 평화 관련 작품들, 해외 유명작가의 작품 2603점을 기증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그동안 하정웅 컬렉션 연구와 함께 매년 기획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해왔고 국내 주요 미술관 전시에도 하정웅컬렉션을 선보였다.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하정웅미술관이 2012년부터 2018년 기증 컬렉션을 선보이는 '씨를 뿌리는 사람' 전을 오는 7월11일까지 개최한다. 하정웅컬렉션 특선전으로 마련한 이번 전시에서는 대표작품 70여점을 만날 수 있다. 하정웅컬렉션은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평화의 기도이자 마음의 평안을 바라는 기도이며, 희생된 사람들과 학대받은 사람들, 사회적 약자, 역사 속에서 이름도 없이 고통받고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위로와 치유의 기도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우환 작가의 'With Wind' (1990), 오병환의 '정물' (2002)을 비롯해 이국자·고삼권·문승근·강경자·김영숙·김인숙 등 재일작가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또 세계적인 거장 백남준의 '마살 맥루한의 초상' (1987), 일본 작가 아사다 다카야기·아사다 유리코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 (1989), 베트남의 레바당 등 해외작가의 작품과 함께 강봉규·강철수·박병희 등 국내 작가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백남준 작 '마살 맥루한의 초상'

신인 음악가들 '더 좋은 내일을 위하여'

광주 5개 대학 우수 졸업생 무대, 내일 금호아트홀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신인 음악가들의 도약을 위한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음악협회(회장 윤영문)가 주최하는 2021신인음악회가 오는 16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이번 공연은 전남대·조선대·광신대·광주대·호남신학대 등 광주 5개 대학 학과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우수 졸업생이 무대에 오른다.



송주혜



백기은



조혜린

먼저 소프라노 송주혜가 김효근의 '첫사랑'과 오페라 '파우스트' 중 '보석의노래'로 공연을 시작한다. 이어 피아노 조혜린이 쇼팽의 '발라드 4번'을 연주하며, 소프라노 장유순은 정예림의 '진달래'와 푸치니 오페라 '제비' 중 '도레타의 꿈'을 들려준다.

바이올린 조하은은 블로흐의 '발섬모음곡'을, 테너 김대중(광신대 음악학과 졸업)은 임금수의 '강 건너

봄이 오듯'을 준비했다.

플루트 최지은은 비제의 '카르멘 환상곡'을 선보이며, 소프라노 신지우는 로날드의 '삶의 여정 1번 전주곡'을, 피아노 송유빈(전남대)은 쇼팽의 '발라드 3번'을 무대에 올린다. 마지막 레퍼토리는 소프라노 백기은이 부르는 이원주의 '연'과 벨리니의 오페라 '정교도들' 중 '나를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다. 전석 초대. 문의 010-6757-6669.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난파선과 수중문화재 이야기

해양문화재연구소, 온라인 공개

난파선이 알려주는 아시아 해양교류를 온라인 영상으로 만나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연수)는 해양유물전시관 소개 영상을 5월 12일까지 수요일마다 온라인(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유튜브)으로 제공한다.

해양문화재연구소는 수중에서 발굴조사한 난파선과 유물을 중심으로 수중문화재를 소개하는 해양유물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영상은 모두 5개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14일 공개된 '바다가 품고 있던 과거를 만나다'를 시작으로 '수중문화재로 만나는 한국 해양교류' (21일)가 펼쳐진다. 이어 '난파선이 알려준 아시아 해양교류' (28일), 서해안에서 발견한 바닷속 타임캡슐(5월 5일), '태안에서 발굴한 수중문화재 뒷이야기' (12일) 등이 이어진다.

이번 영상은 연구소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해양유물 전시관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시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관람객에게 다가갈 수 중문화재와 난파선 등 수중발굴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 마련된 비대면 콘텐츠다. 문의 061-270-302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잊지않겠습니다

세월호 7주기를 기억합니다 미안마 민주화를 지지합니다

통기타거리 가수들, 16일 사직공원 폴리계단

세월호 7주기를 기억하고 미안마 민중들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는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

광주시 남구 사직동 통기타거리의 가수들은 세월호 7주기를 기억하고 미안마 민중들의 민주화 투쟁을 응원하는 버스킹 공연을 오는 16일 오후 3시 사직공원 폴리계단에서 시작한다. 이후 통기타거리 가수들은 5월까지 매주 토요일·일요일 버스킹 공연을 진행한다.

이들은 노래를 통해 풀리지 않는 세월호의 진상 규명과 민주화를 향한 미안마 국민들의 열망에 힘을 보낼 예정이다.

이다. 또한 지구촌에서 누군가의 희생으로 더 이상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는 마음도 담았다.

첫 공연은 김창완의 '안녕'을 비롯해 민중가요 등 더불어 부를 수 있는 노래로 꾸며진다. 이날 출연은 사직공원 음악협의회 소속 박종태·김찬·정영보·양학태·유미랑이 출연한다. 문의 010-9452-624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당신의 세월호를 들려주세요”

광주극장서 다큐 '당신의 사월' 상영

19일 주현숙 감독과 대화

“2014년 4월 16일,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침몰해 가던 배를 바라보며 슬퍼하던 교사, 대통령을 만나러 온 유가족을 보며 말 한마디 못 건넨 카페 사장, 유가족 곁을 지키며 버텨온 인권 활동가, 사고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했던 기억에 힘들어하는 진도 어민, 수업 시간에 소식을 접하고 그제 뉴스를 바라본 학생. 이들은 모두 답답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그날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당신의 사월' 관객과의 대화가 열린다.

오는 19일 오후 7시 20분 영화 상영 후 광주극장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주현숙 감독과 세월호 광주시민상 주모임이 자리를 함께해 영화에 대한

이야기와 세월호를 잊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노력과 목소리를 나눈다.

'당신의 사월'은 유가족이 아닌 그날을 기억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와 마음속에 간직한 희망을 담담하게 담아 일상 속 기억과 연대의 힘을 강조한다.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와 이드 앤글 색션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서울독립영화제, 인디다큐페스티발, DMZ다큐멘터리영화제, 대만국제여성영화제, 서울인권영화제 등에서 소개됐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